

제주, 장애인체전 메달 150개 목표 달성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5일째 메달 현황
금 59개 등 합계 146개… 최종 최소 158개 확보
육상 강현중·수영 유다영 ‘대회 4관왕’ 캐거

제주특별자치도선수단이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폐막을 하루 앞두고 목표 메달 150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제주선수단은 15일 오후 5시 기준 금메달 14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2개 등 31개의 메달을 추가하며 합계 금 59개, 은 35개, 동 52개 등 총 146개를 획득했다. 제주선수단은 배드민턴에서 메달 11개와 축구 1개를 확보하고 있어 사실상 목표를 달성한 상태다.

2026 아시안패러게임 국가대표 강현중은 15일 강창학경기장에서 열린 육상 남자 200m T37 (육상종목)에서 25초42 대회신기록으로 우승하며 이번 대회 4관왕을 달성했다. 강현중은 앞서 남자 100m×4R T35~T38 계주와 남자 400m T37, 남자 800m T37(보급종목)에서 금메달을 수확했다.

이선희도 여자 200m T37 결승에서 33초90의 한국신기록을 작성하며 금메달을 차지해 대회 3관왕에 올랐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만 한국신기록 2개를 수립하며 제주 육상의 기록 행진에 힘을 보탰다. 또 임장선이 남자 200m T45에서 33초68로 우승하며 2관왕에 올랐다.

수영에서는 유다영이 강현중과



육상 강현중



수영 유다영

나란히 4관왕에 올랐다. 유다영은 이날 여자 자유형 100m S6에서 2분00초04로 정상에 섰으며, 전날 여자 계영 400m 34Point에서도 제주팀의 우승에 힘을 보태며 이번 대회 네 번째 금메달을 완성했다. 3년 연속 3관왕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4관왕에 오르며 한 단계 더 높은 성과를 거뒀다.

수영 고준혁은 남자 자유형 100m S6에서 1분20초44로 정상에 올라 2회 연속 3관왕을 달성했으며, 김규리도 여자 자유형 100m S9에서 1분45초46으로 금메달을 추가해 3관왕에 이름을 올렸다. 임대경은 남자 자유형 100m S7에서 1분22초83으로 우승하며 전국장애인체전 4회 연속 2관왕을 달성했다. 김미하도 여자 자유형 100m S8에서 금메달을 보냈으며, 이광희·윤주현·강은정이 은메달, 조영숙이 동메달을



술련에서 금메달을 딴 제주선수단.

제주도장애인체육회 제공

추기했다.

술련에서는 여자 단체전 SL-6의 김유슬·한승희·홍수원이 경남을 382대 333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혼성 단체전 SL-3에서는 강상용·강영에·강영훈·오수민·조태현이 서울을 450대 400으로 제압했고, 남자 단체전 SL-6에서도 강홍·김민범·이상혁이 경북을 375대 342로 누르며 정상에 올랐다. 제주 술련은 이날 단체전에서 금메달 3개를 추가했으며 조태현과 이상혁은 대회 2관왕에 올랐다.

필드골프에서도 제주선수들의 강세가 돋보였다. 여자 개인전 통합 OPEN에서 한현정이 169타로 금메달, 박미애가 186타로 은메달을 획득하며 제주가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볼링에서는 이번 대회 첫 메달이 금빛으로 나왔다. 남자 2인조 TPB

9의 강보길·박광석이 함께 1679점으로 정상에 올랐다. 이와함께 파크골프 여자 2인조 단체전 통합에서는 고매자·김선천이 195타로 정상에 올랐다. 배드민턴에서는 박민재·박민경의 DB 혼합복식과 신정환·강두현의 SU5 남자복식이 나란히 결승에 오르며 대회 최종일 메달 러시를 예고하고 있다.

이밖에 남자 11인제 축구 IDD는 4강에서 전남을 1대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 16일 오전 9시30분 광주와 금메달을 놓고 맞붙는다. 배구는 전북과 3·4위전을 치른다.

특히 축구와 배구 등 구기종목은 종합특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두 종목의 최종 결과가 제주 선수단의 한 자릿수 종합순위 진입을 가를 마지막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위영석기자

제주시야구학교 전국 주니어리그 ‘우승’

결초보는 전국야구대회
결승전에서 14대 3 ‘대승’
올 전국대회 두번째 우승

제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육성하는 제주시야구학교 유소년야구단이 올해 전국대회에서 연이어 정상에 오르며 제주 유소년야구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15일 제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따르면 제주시야구학교 유소년야구단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충북 보은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결초보는 전국유소년야구대회’ 주니어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우승은 올해 출전한 전국대회에서 거둔 두 번째 우승이다. 첫 경기에서 팀와이를 8대 5로 꺾으며 기분 좋게 출발한 제주시야구학교는 두 번째 경기에서도 히트

스를 상대로 8대 0 완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세 번째 경기에서는 광주 레전드에 4대 6으로 패하며 위기를 맞았지만, 선수들은 다시 집중력을 끌어올려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 상대는 첫 경기에서 맞붙었던 팀와이로 제주시야구학교는 경기 초반부터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집중력을 선보이며 주도권을 잡았고, 공격과 수비서 고른 활약을 펼친 끝에 14대 3의 대승을 거두며 대망의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창단 초기부터 제주시야구학교에서 성장해온 주장 김지을(아라중 3)은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하며 팀 우승의 기쁨을 더했다.

제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김정엽 회장은 “대회 우승은 감독·코치진의 지도와 학부모들의 지원, 선수단 전체의 팀워크가 함께 만들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위영석기자



결초보는 전국야구대회 정상에 오른 제주시야구학교 선수단.

제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제공

제20회 전도학교스포츠클럽축전 19~20일 개최

농구·축구 등 20개 종목
초중고생 5800여명 참가

제주 학생들이 땀 흘리며 하나 되는 축제가 열린다.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배 전도학교스포츠클럽축전’이다.

축전은 오는 19~20일 제주 곳곳에서 열린다. 도내 147개 학교, 453개 클럽에서 초중고생 5878명이 참가한다. 학교와 학년의 경계를 넘어 스포츠로 한 데 어우러진다.

경기는 농구와 배구, 배드민턴, 연식야구, 족구, 축구, 치어리딩 등

20개 정식종목으로 치러진다. 여기에 더해 바운스발리볼이 시범종목으로 운영된다.

본경기는 도내 학교 체육관과 공공체육시설 등에서 분산 개최된다. 일부 종목은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사전 경기를 치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스포츠 클럽은 학생들이 함께 땀 흘리며 건강과 협력, 배려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의 장”이라며 “스무 번째를 맞은 이번 축전이 서로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즐거운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지은기자

제주시사격연맹회장배 전도사격대회

제주여상·제주고·동여중·표선중 단체전 ‘정상’

동호인부 X-10슈팅클럽 우승

제주여상이 제3회 제주시사격연맹회장배 전도사격대회 단체전에 정상에 올랐다.

김현지, 지예빈, 고현지, 손민애가 출전한 제주여상은 지난 12일 제주고 사격장에서 열린 여고부 공기권총 단체전에서 1657점(1800점 만점)을 기록하며 대회신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1523점을 기록한 표선고가 차지했다.

여고부 개인전에서는 김현지(제주여상1)가 555점(600점 만점)을 쏘며 1위에 올랐고, 지예빈(제주여상1)이 553점으로 2위, 이채은(표선고2)이 552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남고부 단체전에서는 제주고가 1627점으로 1위에 올랐고 개인전에서는 박인성(제주고3)이 553점으

로 1위, 경호윤(표선고1)이 549점으로 2위, 이도규(제주고1)가 544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여중부 공기권총은 고서희, 박지현, 오시현, 송윤미가 활약한 제주동여중이 1654점을 기록하며 단체전 대회신기록을 세우고 정상에 올랐다.

여중부 개인전은 고서희(제주동여중2)가 557점을 기록해 종전 대회기록인 554점을 3점 경신하며 대회신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남중부 단체전에서는 표선중이 1586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개인전

에서는 강태윤(노형중2)이 536점으로 1위에 올랐다.

이밖에 동호인부 생활체육 레이저전 사격은 X-10 슈팅클럽이 757점으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방사탑 사격클럽은 716점으로 2위, 동부사격클럽은 681점으로 3위에 올랐다.

개인전에서는 이준홍(합덕사격클럽)이 269점으로 1위, 이근철(X-10 슈팅클럽)은 255점으로 2위, 강민석(방사탑 사격클럽)은 253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

위영석기자 ysw1968@ihalla.com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 제주 10:00 영상앨범 산 10:30 중계방송 국회 인사청문회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6:05 TV 유지원 6:35 바다 건너 사랑 6(재) 7:30 코모디 대한민국 8:50 생생정보 스페셜 9:30 어기는 나고야 (농구) 남자 8강 대한민국·요르단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8:5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9:30 제20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농구) 남 8강 대한민국·요르단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종말의집 9:45 나고야 2026 (농구) 남 8강 대한민국·요르단	8:20 어린 철학자 9:20 처음 배우는 시 10:35 최고의 요리배틀 12:10 왔다! 내 손주 13:35위대한 수업, 크레이티브미인즈 14:10 EBS 평생학교 스페셜 16:40 어린 철학자 17:20 남남 하어로 슈퍼잭 18:20 고향민국
12:00 KBS 뉴스 12 13:00 KBS 뉴스워크 특선 지명수배 14:00 KBS 뉴스 14:10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배드민턴] 16:00 사사건건 17:00 KBS 뉴스 5 17:30 탐나는 제주	12: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재) 13:10 인강극장 스페셜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15:00 KBS 뉴스타임 15:15 월드 24 15:45 어는 나고야 (배구) 여자 D조 예선 대한민국·홍콩	12:00 12 MBC 뉴스 12:25 얼마를 부탁해 (재) 13:25 최고!대 호기심 딱지(재) 13:55 2시 뉴스 외전 15:40 제20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배구]여 D조 예선 대한민국·홍콩 17:3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2:00 SBS 12 뉴스 12:45 아기사이 2 13:00 투데이 (재) 13:00 삼촌 댁집사에게 14:00 웰빙 퀴즈쇼 15:20 KCTV 스페셜 16:00 로컬여행 오정해보고 17:20 수줍음 18:00 제주문화원 포럼 & 세미나 19:30 지영이 묻고 국화가 답한다 20:00 삼다공원 이인문서터	9:00 KCTV 9시 뉴스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2:40 KCTV시청자 세상 13:00 삼촌 댁집사에게 14:00 웰빙 퀴즈쇼 15:20 KCTV 스페셜 16:00 로컬여행 오정해보고 17:20 수줍음 18:00 제주문화원 포럼 & 세미나 19:30 지영이 묻고 국화가 답한다 20:00 삼다공원 이인문서터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40 지역 소일극 북극 프로젝트 우리 동네 20:30 일일드라마 기쁜 우리 좋은 날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생로병사의 비밀 22:50 KBS 뉴스라인W 23:30 이슈 픽 앤드 함께 스페셜	18:00 통천에는 따라잡기(재) 18:35 2TV 생생정보 19:50 일일드라마 목양의 빛 20:30 구르미 댄스 그린 달빛 21:50 토요일 미나시리즈 너 말고 다른 연애(재) 23:05 해피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재)	18:05 애들은 가래 1호전 19:05 가족관계증명서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전지적 참견 시점 스페셜 22:30 2026 아시안게임 특집 라디오스타	18:10 생방송 투데이 19:00 뉴스원스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골 때리는 그녀들 22:50 나고야 2026 특집 나고야 길고야 1부	7:10 박성태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일찍이소나다 12:00 CBS 뉴스 14:05 이불공의 여행기 17:00 시사매거진 제주 17:30 박성태의 뉴스쇼 530 18:00 박재홍의 한판승부 20:00 CBS 뉴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BS 064)740-7331 / ☎ MBC 064)740-2432 / ☎ JIBS 064)740-7800 / ☎ KCTV 064)741-7723 / ☎ 제주CBS 064)748-7400 / ☎ TBN제주교통신국 064)717-8114				

오늘의 운세

16일


 김종상 지단(組田)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과다한 기대나 행동은 금물. 경쟁자가 생기고 질투의 대상이 된다. 48년 대인관계의 화합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라. 60년 문서 이사, 매매 등이 길하고 이익이 있다. 72년 모임 또는 음주에 신경을 것. 84년 격려와 충고를 진심으로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

37년 긍정적인 생각이 힘이 된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겨라. 49년 문서관련 재운이 있으니 계약서나 매매 송사에 기쁨이 있다. 61년 자기 세력이 커지니 마음먹은 일은 자신을 갖고 추진하라. 73년 직장인은 화합을 유도하는 리더십이 필요. 85년 마음먹은 것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다.

38년 생각이 많은 기쁜 소식이나 선악이 생긴다. 50년 활동성은 왕성해지나 자금 지출이 따른다. 62년 동업자나 협조자가 있으나 의타심을 갖는 것은 화가 될 수 있다. 74년 승진의 기회가 오거나 좋은 위치로 움직일 수 있다. 86년 새로움에 도전하거나 변동을 원한다.

39년 해결되지 않던 일이나 주변의 도움으로 일이 풀려나간다. 51년 일의 성과가 미약하거나 질투자의 등장으로 감정의 기복이 있다. 63년 부부간 다투면 힘들어지니 관용이 필요하고 먼저 화해. 75년 상대방과 경쟁 시 미워하는 마음보다 선의에 경쟁을 하라. 87년 전문성을 갖거나 전문가로 거듭나자.

40년 노력한 만큼의 즐거움과 이익이 온다. 52년 여행이나 외출할 일이 생기니 문단속 철저. 64년 현재에 만족해야 할 것 같다. 욕심내면 다 잃는 경우가 온다. 76년 밝은 표정으로 상사를 대하면 좋은 기운이 오고 인정받는다. 88년 원하고 희망하는 취업이나 만남은 아니지만 이뤄진다. 최선을 다하라.

41년 배신 또는 금전적 손해가 따르니 주의. 53년 내실을 기하는데 집중해야. 가정안에서는 부부간 의견차이로 불화. 65년 뒷사람이나 부모님의 소식이 있으나 분주해지고 고민만 가득. 77년 사소한 시비나 언쟁이 화대되는 격으로 만사 조심. 89년 사사로운 감정이 있다면 풀려야 안풀린 곪아 끓어오른다.

42년 동업자나 거래처에서 내게 도움을 청하면 오늘은 정중히 거절하는 지혜가 필요. 54년 신용함과 여유를 가져야 손해가 적으니, 급할수록 돌아가라. 66년 사소한 실수가 비웃음이 될 수 있다. 78년 재물운이 가득하고 돕는 이가 있어 만사형통. 90년 독단적 행동은 자제하고 주변과 협동하는 게 좋다.

43년 재물이 증가되나 일시적인 현상. 이익은 미약하다. 55년 금전지출 시비가 발생하니 돈거래는 신중하는 것이 좋다. 67년 직장인은 명예 또는 상사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고 고가점수에 반영될. 79년 여행이나 외출할 일이 생긴다. 이성교제 길. 91년 가벼운 운동은 정신을 맑게 해주는 보약.

44년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영영하면 이익이 있다. 56년 재물운이 있지만 투기는 신중해야 한다. 68년 친한 친구와 사소한 일로 불화하거나 이성간에 의견 차이를 헤아려도 있다. 80년 열심히 일한 결과를 얻게 되며 선배나 윗분의 칭찬이 많다. 92년 문서계약 매매 거래가 길하다. 과음 주의.

45년 할 일이 아직 산재돼 있어 몸이 분주하다. 57년 계산상 착오가 생기거나 머뭇거리다 손해가 발생하니 기회를 잘 활용할 것. 69년 할 일이 늘어나나 몸이 따르지 않고 마음만 바쁘다. 81년 집안에서 결혼에 관한 문제가 오고 간다. 부모님과 상의도 필요. 93년 과로 또는 음주로 건강에 적신호가 오니 조심.

46년 사회생활이나 가정적으로 변동의 근심수가 오니 배려하는 마음을 먼저 갖자. 58년 남편 또는 경제적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된다. 70년 경제적 도움을 주는 일을 하거나 역할을 해야 한다. 82년 이성교제의 만남에 다소 불협화음이 있으니 긍정적 화합이 필요. 94년 형제의 문제로 변동, 변화가 온다.

47년 주변 오는 것이 있으니 배풀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겐 행운. 59년 자금문제로 다툼이 생기니 주의. 가정의 화목은 믿음과 배려에서 출발. 71년 자녀나 종업원으로부터 한 톨의 애를 수 있으니 사정교육이 우선. 83년 대인관계를 위해 내가 먼저 마음을 열자. 95년 오고 가는 정속에 믿음의 오기나 대화 필요하다.